

사회

■ ‘오현섭 쓰나미’ 여수에 가 보니

“비리의 끝은 어디...” 공황 상태

“도대체 이번 비리 파장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정말 걱정됩니다. 혹시라도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에 불뿔이 튀지는 않을까요...”

지난달 31일 오전 여수시청. 오현섭 전 시장이 재직 당시 ‘야간경관조명사업’ 뿐만 아니라 ‘이순신광장조성 사업’ 과정에서 8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자 시청 안팎은 온통 뒤숭숭한 분위기였다.

이날 시청 사무실 책상 곳곳에는 오 전 시장의 ‘비리’ 관련 기사가 실린 신문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었다. 같은 시간 청사 외부에서는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오 전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모두들 얼굴에 당혹스런 기색이 역력했다.

오 전 시장에 대한 비리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여수지역 전체가 ‘공황’ 상태에 빠졌다. 여수시 공무원들은 오 전 시장에 대한 경찰의 수사 상황을 지켜보며 ‘오현섭 사태’가 물고을 파장을 예의 주시하고 있었다.

공무원들은 또 검찰이 오 전 시장

의 재임 시절 추진된 웅천행태터널 사업(사업비 92억원)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는 말을 전해 듣고 자칫 여수가 ‘비리 도시’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였다.

이 가운데 여수시 도심개발사업단의 도시디자인과와 원도심개발

접한 뒤 크게 실망했다”면서 “오 전 시장의 잘못으로 여수시 전체의 명예가 땅에 떨어진 것 같다”고 토로했다.

같은 날 오후 여수시의회 청사 분위기는 흥흥했다. 여수시의회는 오 전 시장이 사업자로부터 받은 ‘검

은 돈’이 의원들에게 흘러간 사실이 확인된 이후 확인되지 않은 말들이 쏟아지고 돌고 있다.

심지어 여수시의회 안팎에선 ‘오 전 시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람은 000의원, 000의원이다’는 식의 소문도 파다했다.

이날 시의회 의장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2명의 방문객은 응접실에 앉아 걱정스런 표정으로 오 전 시장의 비리 사건과 관련된 대화를 나누

고 있었다. 60대의 방문객은 “신문에 오 전 시장의 돈이 사·도의원은 물론이고 중앙정치권에 도 흘러갔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큰 일이다”고 걱정했다.

여수시민들도 오 전 시장의 비리 사실이 줄줄이 드러나고 있는 데 대해 분노했다. 시민들 상당수는 여수 시청을 이끌던 오 전 시장이 비리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

또 시의원들 역시 오 전 시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사실에 강한 실망감과 불신감을 드러냈다.

아울러 시민들은 ‘오현섭 비리 사건’이 자칫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에 차질을 가져오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었다.

이날 민원을 접수하기 위해 시청을 찾은 시민 양모(45·여수시 중앙동)씨는 “타지역에서 여수를 어떻게 바라볼 지 걱정”이라며 “이번 기회에 오 전 시장은 물론, 비리에 연루된 공직자 모두를 낱날이 밝혀서 실추된 여수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수=김호기자 kimho@/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시청 안팎 뒤숭숭... 파장에 촉각 “○○○가 돈 받았다” 소문 파다 시민들 박람회에 불뿔 튀까 걱정

과 직원들은 모두 굳은 얼굴이었다. 오 전 시장이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야간경관조명사업’과 ‘이순신광장사업’을 추진한 부서들이다. 오 전 시장이 두 사업을 수주한 업체로부터 총 10억원을 받은 의혹이 제기되면서 두 사무실 사이의 복도에는 정적감마저 감돌고 있었다.

복도를 지나던 한 직원은 “최근 오 전 시장과 관련된 언론 보도를

광주고용노동청장실 점거 시도

쓰리엠 노사갈등 장기화

무기한 천막농성 돌입

한국쓰리엠(3M) 조합원과 금속노조 관계자 등 10여명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실 점거를 시도하고, 광주공장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가는 등 쓰리엠 문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31일 금속노조 광주전남지회 등이 주도한 쓰리엠 노사갈등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또 광주고용청장실에서 쓰리엠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광주고용청이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해 줄 것 등을 요구했으나, 오후 5시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해산됐다.

민주노총 쓰리엠 지회는 지난달 10일까지 광주공장과 화성공장 등에서 진행된 회사 측과의 단체 교섭이 결렬되자 이날 광주고용청장실 점거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쓰리엠 지회는 또 나주시 다시면 나주공장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어 단체협상 결정에서 비롯된 쓰리엠 문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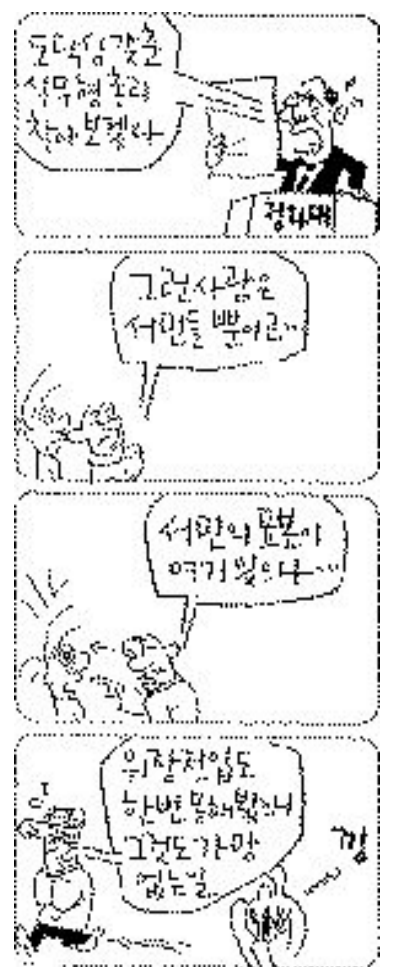
이에 대해 쓰리엠 측은 ‘금속노조가 개입한 단체 협상은 임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양측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앞서 한국쓰리엠 지회는 지난달 20일에도 “쓰리엠 노동자들이 회사 측의 불성실한 교섭과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나주시청이 이를 방관만 하고 있다”며 나주시청에서 농성을 벌였다.

이날 지회 관계자 20여명은 임성한 나주시청을 1시간30분 가량 점거했으며, ‘쓰리엠 분사 측에 성실 교섭을 하도록 요청하겠다’는 임 시장의 답변을 듣고 해산됐다.

/중부취재본부=최승렬기자 srchoi@

나원침 (8108) 김장두



광주 모여고 3학년

26명 식중독 증세

광주의 한 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 급식을 먹은 뒤 집단식중독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달 28일 광주시 남구 모여고 3학년 학생 26명이 점심 급식을 먹고 설사와 복통 등을 호소해 가검물을 채취, 남구보건소에 역학조사를 의뢰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 학교 학생들은 점심 급식으로 닭죽과 쌀밥, 고구마파이, 오징어튀김, 바나나, 유산균음료 등을 먹었으며, 증세가 비교적 심한 일부 학생들은 병원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주저앉은 소’ 전남에 98마리

모기 전염·폭염 탈진

전남 일부 축산농가에서 ‘주저앉은 소’가 나타나 당국이 원인조사에 나섰다.

지난달 31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달 들어 순천과 곡성, 구례 화순 지역 축산농가에서 기르는 소 98마리가 ‘주저앉은 소’ 증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일부는 살처분됐다.

지역별로는 곡성이 58마리로 가장 많고 순천 28마리, 구례 10마리, 화순

2마리 등으로 이중 23마리가 살처분됐다.

축산당국은 해당 지역의 축산농가 일부에서 시료를 채취해 살처분된 소들 중 2마리에서 모기매개성 질병을 확인하고 정확한 발병원인을 조사 중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원인이 불분명하지만 폭염에 의한 탈진 등으로 소들이 쓰러지는 것 같다”며 “농가에서 치료기간이 없다고 판단하면 살처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114 안내 오류’ 트집 돈 뜯은 40대 집유

‘114 우선번호 안내서비스’ 제공 초기의 오류를 문제삼아 수년간 거액의 돈을 뜯고 부당한 민원을 제기한 40대 공갈범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강완수 판사는 지난달 31일 114 안내서비스의 오류를 빌미로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기소된 문모(45)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문씨는 지난 2005년 3월께 114안내 위탁업체인 H사의 ‘우선번호 안내 서비스’(상호명을 모를 경우 회원업체를 우선적으로 알려주는 광고서비스)의 오류를 꼬투리 잡아 1000만원 명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 5월부터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와 금호지구에 수천장이 넘는 성매매 광고 전 단지를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성매매 광고 업주로부터 하루에 5~7만원의 일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의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우선번호 서비스’에 67회선을 가입했다가 114 상담원들이 일부 잘못된 안내를 한 점 등을 문제삼아 공갈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영광 백수읍 갯벌서

백합채취 60대 숨져

지난달 31일 낮 2시20분께 영광군 백수읍 하사리 중촌마을 갯벌에서 김모(여·60)씨가 얕은 물속에서 숨져 있는 것을 해경이 발견 후 수색 중 발견했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백합을 채취하기 위해 전날 오전 10시께 바다에 나간 뒤 귀가하지 않아 가족들에 의해 실종 신고된 상태였다.

해경은 김씨가 만조를 만나 갯벌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익사한 것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서부취재본부=조익실기자 ischo@

안마시술소서 알몸 활발하며 행패

안마시술소에서 알몸으로 돌아다니던 30대가 종업원의 편지를 들고 행패를 부렸다

가 경찰서행. ○○-지난달 31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김모(38)씨는 술에 취해 이날 새벽 2시20분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한 안마시술소에서 종업원(33)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는 등 폭행한 혐의.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안마를 받은 뒤 가운을 입지 않고 돌아다니던 중 종업원으로부터 ‘다른 손님들도 있으니까 옷을 입어 달라’는 말을 듣고 화끈에 행패를 부렸다는 것.

○-김씨는 경찰에서 ‘종업원과 실랑이를 한 것 같은데, 술에 취해서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회설수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광주 G20 대테러 훈련 오는 4일부터 이틀동안 광주에서 열리는 ‘광주 G20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회의’를 앞두고 광주지방경찰청과 육군 31사단 등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지난달 31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장에서 테러대비 모의훈련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경찰, 토착·교육·권력비리 집중 단속

오늘부터 연말까지

이명박 대통령이 공정한 사회를 강조하고 검찰이 대대적인 사정수사를 예고한 가운데 경찰도 하반기에 토착비리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1일부터 12월31일까지 4개월간 토착, 교육, 권력비리 등 3대

비리를 집중 단속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앞서 김준규 검찰총장은 전날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와 전국 26개 검찰청 30여명의 특별수사 전담 부장검사가 참가한 특수부장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이 원하는 것은 느슨하지 않고 강력한 법집행”이라며 대대적인 사정수사를 예고했다.

경찰의 중점 단속 대상은 지방자치

단체의 인사와 예산, 인허가 관련 비리, 자치단체장과 토호 세력 간 유착비리, 교육비리, 사이버기자의 금품갈취 등이다.

경찰은 올해 7월~8월을 첩보 수집 기간으로 정해 기존의 단속 결과를 비리 유형별로 분석하는 한편 감사원과 감독관청의 감사 자료 등을 토대로 첩보를 수집해 왔다.

/연합수

음란전단지 배포 2명 검거

광주서부경찰은 지난달 31일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 일대에서 불법 음란전단지를 배포한 정모(25)씨 등 2명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 5월부터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와 금호지구에 수천장이 넘는 성매매 광고 전 단지를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성매매 광고 업주로부터 하루에 5~7만원의 일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Gwangju is a Goldmine for Sightseeing Hotels'. The ad features a large image of a hotel room and text in Korean. The main headline reads '내집같은 편안함!' (Home-like comfort!). Below it, it says '광주에는 금수장관광호텔이 있습니다.' (In Gwangju, there is the Gamsujang Tourist Hotel). The ad lists various amenities and services offered by the hotel, including a swimming pool, spa, and conference facilities. The bottom of the ad includes the hotel's name and contact information.